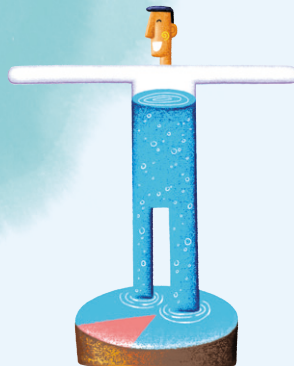


법정계량 단위의 사용





법정계량단위의 사용

자료 제공 산업자원부 홍보자료 발체

우리나라는 산업자원부에서 제정한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해 2007년 7월 1일부터 국내외의 모든 상거래에 법정계량단위를 사용해야만 하며,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1~2년의 징역형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법정계량단위란 상품 거래 및 공공 서비스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정부가 법령에 의하여 정하는 kg(무게), m(길이), s(시간) 등의 단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법정계량단위는 국제에서 공용으로 사용되는 SI단위(The International System of Units)를 기초로 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1962년부터 국제단위계(미터법)를 사용하여 왔으나 실생활에서는 여전히 관습에 따라 평, 근, 돈, 야드, 인치 등과 같은 단위를 빈번히 사용하여 왔기 때문에 법률에 의해 비법정계량단위의 사용을 금하게 되었습니다. 유럽, 일본, 중국 등 대부분의 나라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국민의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이미 법정계량단위로의 전환에 성공하였습니다.

그러면 다른 여러 나라에서와 같이 법정계량단위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국내적으로는 품목에 따라 거래량이 달라 생기는 혼란을 줄이고, 부정확한 단위 사용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같은 단위임에도 불구하고 물품, 지역에 따라 다르게 사용되는 예를 제시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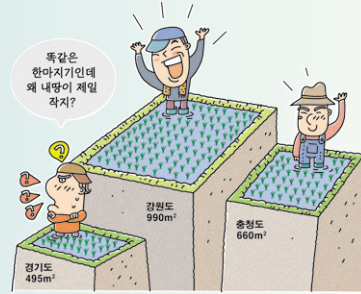
- 1근 : 과자 150 g, 고기는 600 g, 채소와 야채 400 g
- 1평 : 토지, 건물은 3.3 m², 유리는 0.9 m²
- 1마지기 : 경기도 495 m², 충청도 660 m², 강원도 990 m²

때로는 판매자가 도매상으로부터 ‘관’으로 물건을 구입하여 소비자에게는 ‘g’으로 환산하여 판매해야 하는 불편도 있었습니다. 특히 집의 크기와 금의 양을 표시하는데 사용되었던 ‘평’과 ‘돈’의 사용에 있어서는 ‘평’의 경우에 ‘1평’의 크기가 약 3.305785...m²로 정확한 환산이 어려워 어렵에 따라 최대 1평에 3.3 m²까지 차이가 났고(106~109 m²는 모두 30평임), 금은 한 돈에 3.75 g, 반 돈에 1.875 g에 판매되었으나 반 돈을 쥔 수 있는 저울이 많지 않아 실제 무게에서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국민이 불필요한 재환산과 정확한 양의 예측이 어려운 비법정단위의 사용에 대하여 불편을 호소하였으며 피해를 보는 사례까지도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자원부가 제공한 홍보자료 중 피해사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 서민을 울게 하는 평 단위

결혼 20여년 만에 어렵게 집을 장만한 강오씨, 고심 끝에 35평짜리 아파트를 결정했는데, 32평형 친구의 집에 가보니 자신의 집과 별반 달라 보이지 않았다. 우연히 법정계량단위의 공고를 보고 난 후 32평이나 35평이나 실제 평수는 거의 똑같다는 사실을 알게 된 강씨. 1평이면 600만원 정도이고, 3평이면 2000만원 상당에 해당하는 돈인데, 똑같은 집을 2000만원이나 더 주고 샀다는 사실에 억울하고 황당함을 느꼈다.



● 남편의 보물 1호에 얹힌 진실



남편이 보물 1호로 여기던 10돈짜리 금 목걸이. 시아버님께 받은 유일한 선물이라 늘 함께 했는데, 급작스런 수술비 마련을 위해 팔 수 밖에 없었다. 눈물을 머금고 금은방에 가 보니 시아버님이 그토록 강조하시던 금 열 돈은 37.5g이 아니라 35g밖에 되지 않았다. 금전적 피해도 피해지만, 시아버님이 그토록 강조하던 열 돈이 열 돈이 아니라는 사실에 남편은 무척 안타까워하면서도 돌아가신 시아버님이 모르셔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했다.

둘째, 법정계량단위가 국제 거래의 기본 단위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제품을 국제 사회에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세계 각국이 채택하고 있는 법정계량단위의 사용이 필요합니다. 유로연합은 2010년부터 법정계량단위로 표시되지 않은 물품의 수입을 금할 예정입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나라에 ‘평’과 ‘돈’의 사용을 들여오게 한 일본의 경우는 더 이상 이와 같은 단위를 사용하지 않기로 하여 현재는 정착된 단계에 있습니다.

셋째, 몇 만 분의 일의 오차를 가지고 승부하는 현대 과학기술사회에서 국가 측정 기술의 고도화 및 정밀 측정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즉 법정계량단위를 사용해야만 미세 단위까지 측정이 가능하여 정밀성과 정확도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법정계량단위 표〉

| 구분 | 사용해야 하는 단위 (법정계량단위) | 사용금지 단위 (비법정계량단위) | 비고 (환산단위) |
|----|--|-----------------------------------|---|
| 길이 | 미터 (m) 센티미터 (cm) 킬로미터 (km) | 자(尺), 마, 리(里) 피트, 인치 마일, 야드 | 1 자 = 30.303 cm 1 피트 = 0.348 m 1 인치 = 2.54 cm 1 마일 = 1.609 km 1 야드 = 0.914 m |
| 넓이 | 제곱미터 (m ²) 제곱센티미터 (cm ²) 헥타아르 (ha) | 평(坪), 마지기 정보 및 단보 에이커 | 1 평 = 3.305 m ² 1 정보 = 9 917 m ² = 0.009 km ² 1 에이커 = 4 046 m ² = 0.004 km ² |
| 부피 | 세제곱미터 (m ³) 세제곱센티미터 (cm ³) 리터 s (L 또는 l) | 홉, 되, 말 석(섬), 가마 갈론 | 1 되 = 1.8 L = 1 803 m ³ 1 말 = 18 L = 0.018 m ³ 1 갈론 = 3.78 L |
| 무게 | 그램 (g) 킬로그램 (kg) 톤 (t) | 근(斤), 관(貫) 파운드, 온스 돈, 냥 | 1 근 = 600 g = 0.6 kg 1 관 = 3750 g = 3.75 kg 1 파운드 = 453 g = 0.453 kg 1 온스 = 28.349 g = 0.028 kg 1 돈 = 3.75 g (1냥 = 10 돈) |

〈올바른 단위 표기방법〉

- ▶ ‘양’ 을 나타내는 기호는 이탤릭체를 사용하고 문장의 앞에 쓰더라도 소문자로 씁니다.
예) m (질량), t (시간) 등
- ▶ ‘단위’ 를 나타내는 기호는 고딕체로 쓰고 문장의 앞에 쓰더라도 소문자로 씁니다.
예) kg, s, KHz 등
- ▶ 수치와 ‘단위’ 를 나타내는 기호는 띄어 쓰나 도(°), 분(′), 초(″)는 띄우지 않습니다.
예) 35 mm, 10 kg, 25 % / 25°, 23′, 37″
※띄어쓰기 규칙은 새로운 교육과정에 의해 개발되는 교과서부터 적용됩니다.
- ▶ 수치가 복수일 경우에도 단수형으로만 사용합니다.
예) 5 sec

